

현재까지 발전공기업 구조조정 관련하여 구체적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진 바 없음

<보도내용>

- 2025.9.10. 한국경제 「발전사 통폐합설에 5개사 노조·지자체 벌써부터 강력 반발」 기사에서,
 - “지역별로 흩어져 있는 발전 공기업 통폐합이 본격화하면 개별 노동조합과 지방자치단체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우려된다”고 보도하였습니다.

<정부 입장>

- 현재까지 공공기관 및 발전 공기업의 구조조정 관련하여 구체적인 방향이나 내용이 정해진 바 없습니다.
- 추후 통폐합 등의 구조개편 방향은 전력산업의 경쟁력, 에너지 전환과 고용안정, 탄소중립 등 정책목표 달성가능성과 지역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결정될 것이며,
 - 그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지자체를 포함한 이해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한 후에 결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담당 부서	전력정책관	책임자	과 장	문양택 (044-203-3880)
	전력산업정책과	담당자	사무관	안준호 (044-203-3881)